

No.19 - 아이젠도(애염명왕 좌상)

1770년에 지어진 이 작은 사당은 예전에는 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이었지만, 1983년에 애염명왕상을 이곳에 안치하면서 이름을 아이젠도(愛染堂, 애염당)로 고쳤습니다. 이 애염명왕상은 1870년대에 일어난 불교 배척 운동으로 폐사된 안젠지 절에서 모셔지던 것이었습니다.

애염명왕은 인간의 애욕을 그대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준다고 여겨지는 부처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사람 또는 물건과의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1월 27일에 개최되는 아이젠도 대제 때는 애염명왕 앞에서 사이토 고마쿠(採燈護摩供)라는 법요가 거행됩니다. 이 법요에서는 소원이 적힌 호마목을 불에 태우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결연 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